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미표기

문제점 개선경험

OOOOOO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하면서 유용한 국가지원사업이 많음에도 정보부족으로 업체들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대상이 되는 업체를 선별해 유선이나 이메일로 일일이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한 결과 사업참여율과 고객 만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헌신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국책사업단 활동을 하면서 성과를 내기까지 여러 번의 위기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팀원들은 의기투합하여 '수출'이라는 최종목적달성만을 생각했고 밤낮 가리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에는 첫 수출인 2만 불 수출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만제기 사전예측

중소기업지원 사업단은 7명의 팀원이 협력하여 성과를 내는 공동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당시 부팀장이었던 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팀원 각자에게 업무를 정해주어 매주 보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도록 했고, 그 결과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 업무량에 대한 팀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상황에서 업무처리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표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적하시며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당황했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형식 또한 중요함을 이해시키고자 했습니다. 국가기관은 고객과의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자기소개 및 경력기술

저는 대학 시절 GTEP(glob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사업단에서 1년 6개월간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G-FAIR, BABY FAIR와 같은 다수 국내 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만나기도 했고, 지원업체의 제품홍보를 위한 영문브로슈어 제작, 웹 포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금난, 정보부족과 같은 근원적인 문

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국가지원사업을 찾아 지원업체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를 느꼈고, 졸업 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OOOO공단에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OOOOO공단에서 10개월간 일하면서 해외시장개척단, 전시회 사업을 지원했고, 그 외에도 지자체 수탁사업, kotra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체를 방문하면서 업체의 상황에 따라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할지 고민하고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보기도 하면서 업체를 보는 눈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제가 인턴활동을 했던 대구지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을 만나보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사업체 수의 약 20%가 소재해 있는 경기도는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큼니다. 이것이 제가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다.

1년 6개월의 중소기업지원 사업단 활동은 저의 꿈을 찾게 해주었고, 10개월의 OOOOO공단 인턴 경험은 중소기업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며 산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항상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